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1월 09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장동우 의원

“4.19묘지 주차장 개방 강북구청장이 나서야”

장동우 의원은 “4.19묘지 주차장 폐쇄로 인해 침체된 상권 살리기 위해 강북구청장이 나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장동우 의원은 먼저 “4.19국립묘지 주차공간은 인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의 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주변 식당을 이용하거나 북한산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공간이라고 설명하고 4.19국립묘지 측은 10월2일부터 참배객을 제외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이 폐쇄된 후 인근 50여 곳 식당과 커피숍은 손님이 끊겨 장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월 중순에는 상가대표들이 주차장개방을 개방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4.19국립묘지 관계자를 면담했고, 본 의원도 상가대표와 두 번 간담회를 가진 후 국가보훈처에 주차장을 원래대로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4.19국립묘지 측은 주차장의 폐쇄이유를 참배와 관련 없는 북한산등산객의 주차수요가 너무 많아 정작 참배객들의 주차공간의 확보 어려움이 있으며, 정숙한 공간이어야 함에

도 음주로 인한 주변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많지만 점심시간에 두 시간 정도 개방하겠다고 한다”고 밝히고 “물론 4.19국립묘지 공간은 신성한 곳으로 보호받아야 함은 이



장동우 의원

론의 여지가 없지만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일반인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4.19국립묘지도 주민들과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차장 폐쇄가 주변 상권의 소멸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은 서명운동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구민을 주민으로 섬기는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4.19국립묘지 관리소에서 우려하는 음주로 인한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이나 건전한 주차문화를 구현을 위하여 강북구청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책임감과 대안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직접 4.19국립묘지 측과 국가보훈처, 그리고 유족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포스트 3면

강북구의회 장동우 의원 5분 자유발언

4.19묘지 주차장 개방 강북구청장이 나서야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동우 의원이 4.19묘지 주차장 폐쇄로 인해 침체된 상권 살리기 위해 강북구청장이 나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장동우 의원은 먼저 “4.19국립묘지 주차공간은 인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의 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주변 식당을 이용하거나 북한산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공간이라고 설명하고 4.19국립묘지 측은 10월2일부터 참배객을 제외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이 폐쇄된 후 인근 50여 곳 식당과 커피숍은 손님이 끊겨 장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월 중순에는 상가대표들이 주차장개방을 개방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4.19국립묘지 관계자를 면담하였고, 본 의원도 상가대표와 두 번 간담회를 가진 후 국가보훈처에 주차장을 원래대로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4.19국립묘지 측은 주차장의

폐쇄이유를 참배와 관련 없는 북한산등산객의 주차수요가 너무 많아 정작 참배객들의 주차공간의 확보 어려움이 있으며, 정숙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음주로 인한 주변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많지만 점심시간에 두 시간 정도 개방하겠다고 한다”고 밝히고 “물론 4.19국립묘지 공간은 신성한 곳으로 보호받아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일반인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며 대단히 유감”이라며 4.19민주혁명이 강북구민의 사랑 속에서 문화제로 꽃피우듯이 4.19국립묘지도 주민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차장 폐쇄가 주변 상권의 소멸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은 서명운동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구민을 주민으로 섬기는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4.19국립묘지 관리소에서 우려하는 음주로 인한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이나 건전한 주차문화를 구현을 위하여 강북구청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책임감과 대안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직접 4.19국립묘지 측과 국가보훈처, 그리고 유족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4·19묘지 주차장 폐쇄 해결 위해 구청장이 나서야

장 동 우 의원
(수유1동,우이동,인수동)

강북구 의회 장동우 부의장은 4.19국립묘지 정문의 우측에 위치한 주차공간은 인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의 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주변 식당을 이용하거나 북한산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공간임에도 불구하고, 4·19국립묘지 측은 10월 2일부터 참배객을 제외한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4·19국립묘지 측은 참배와 관련 없는 북한산등산객의 주차수요가 너무 많아 정작 참배객들의 주차공간의 확보 어려움이 있으며, 정숙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음주로 인한 주변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많아서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주차장이 폐쇄된 지 근 한달이 지나 인근 50여 곳 식당과 커피숍은 손님이 끊겨 장



▲ 장동우 의원.

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10월 중순에는 상가대표들이 주차장개방을 개방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4.19국립묘지 관계자를 면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저도 상가대표와 두 번 간담회를 가진 후 국가보훈처에 주차장을 원래대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4·19국립묘지주차장을 점심시간에 두 시간 정도 개방하겠다고 하지만,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음에도 일반인의

주차장 금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며, 대단히 유감입니다. 4·19민주혁명이 강북구민의 사랑 속에서 문화제로 꽃피우듯이 4·19국립묘지도 주민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우 부의장은 주차장 폐쇄가 주변 상권의 소멸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구민을 주민으로 섬기는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만 하는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

우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상황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은 실정이라면서, "4·19국립묘지 관리소에서 우려하는 음주로 인한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이나 건전한 주차문화를 구현을 위하여 강북구청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책임감과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